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 이론에 대한 고찰

– 용어와 장르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 병 규

단독/서울대학교

Park, Byong-Kyu (2010), Algunas consideraciones sobre la teoría de la minificción.

Abstract En la década 80 iniciaron los estudios fructíferos sobre los textos breves que se habían considerado generalmente como anomalía, a causa de que no pertenezcan a ningún género literario. Y luego, se han bautizado como microcuento, microrrelato, minificción, etc., sólo para mencionar algunos.

En cuanto a nombrar los textos breves algunos críticos prefieren al término 'microrrelato' asignando importancia definitoria al rasgo de la narratividad, así como también la ficcionalidad. Sin embargo, la extensión de texto tiene tendencia a disminuirse cada vez más y hoy en día es muy frecuente la obra en menos de cien palabras: significa que la narratividad se deteriora considerablemente porque el texto tan breve no permite espacio suficiente para contar la historia.

Como todos los géneros literarios, se incorporan a la minificción varios tipos de discurso literario o no literario, lo que nos admite discutir la cuestión genérica: es decir, su naturaleza transgenérica. En este momento se crea un tipo de minificción que experimenta, gracias a la tecnología moderna, la incorporación de los elementos de pintura y música y acaso se necesitaría la discusión genérica entre las fronteras artísticas.

Key words Minificción, Minirrelato, Minicuento, Hibridación genérica, Transgenérico

미니픽션, 미니서사, 미니단편, 혼종장르, 통장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서론

이른바 ‘봄 소설’로 대변되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황금기가 이윽기 시작하던 1980년대 초, 돌로레스 코흐(Dolores Koch)를 비롯한 일련의 젊은 비평가들은 그동안 문학연구에서 소외된 ‘짧은 텍스트(texto corto)’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런 유형의 문학텍스트는 20세기 초부터 꾸준히 창작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문예지 《단편 *El cuento*》, 콜롬비아의 문예지 《에쿠오레오 *Ekúóreo*》, 아르헨티나의 문예지 《순수 단편 *Puro cuento*》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짧은 텍스트는 비록 장르적으로는 미분화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당량의 작품이 축적되고, 문학적 성취도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를 추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의 젊은 비평가들이 짧은 텍스트에 관심을 보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60년대부터 제기된 ‘소설의 죽음’이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소설은 대중으로부터 점차 소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작가들은 새로운 문학을 꾸준히 모색하고, 영화와 같은 대중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등 부단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비평계의 상황도 작용했다. 1960년대부터 마술적 사실주의와 환상문학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학비평은 이론적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동어반복에 머물러 있었기에 새로운 전기가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 돌로레스 코흐는 “오래 전(1980), 프랑스 소르본대학교에서 개최된 단편관련 대회에 참가하여 안토니오 디 베네데토(Antonio di Benedetto),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ázar) 등과 함께 짧은 작품을 읽었던’ 경험이 짧은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Koch 2004, 45).

이제 짧은 텍스트라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비평의 임무는, 라우로 사발라(Lauro Zavala)의 말처럼, “장르의 문제(단편인가?), 미학의 문제(문

학인가?), 길이의 문제(아주 짧은 이야기가 되려면 얼마나 짧아야 하는가?), 명칭의 문제(뒤라고 부를 것인가?), 유형의 문제(얼마나 많은 유형의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는가?), 텍스트 본성의 문제(왜 그렇게 짧은가?)”를 천착하는 것이다(Zavala 2002, 539). 이런 작업은 신생 장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앞서 언급한 돌로레스 코흐와 라우로 사발라를 비롯하여, 비올레타 로호(Violeta Rojo), 프란시카 노게롤(Francisca Noguerol), 다비드 라그마노비치(David Lagmanovich)와 같은 비평가들이 이론적 탐구를 진행하는 한편, 마르코 데네비(Marco Denevi), 아나 마리아 슈아(Ana María Shua), 라울 브라스카(Raúl Brasca), 기예르모 삼페리오(Guillermo Samperio)와 같은 작가들이 작품 창작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1990년에 이르면 라틴아메리카 문단에서 짧은 텍스트는 확고한 문학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니픽션’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텍스트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논의가 소개되었다. 2000년 계간 문예지 『문학나무』에 라틴아메리카의 미니픽션이 첫선을 본 이후, 2002년 계간 문예지 『미네르바』에는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의 이론, 평론, 작품을 묶은 특집이 게재됐다. 2003년에는 ‘미니픽션작가협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4권의 미니픽션 작품집이 출판되었으며, 여러 문예지에서 미니픽션을 특집으로 신거나 작품을 주기적으로 게재하는 등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품도 간헐적이고 산재적으로 소개되었을 뿐, 미니픽션 작품집 번역은 아우구스토 몬테로소(Augusto Monterroso)의 『검은 양과 또 다른 우화들 *La oveja negra y demás fábulas*』이 유일하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에 대한 연구의 일부이다. 라틴아메리카에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훌리오 코르타사르, 후안 호세 아레올라(Juan José Arreola), 루이사 발렌수엘라(Luisa Valenzuela), 아나 마리아 슈아 등 이미 문학적으로 검증된 작가들의 미니픽션이 많이 있으며, 이들 작품에 대한 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용어를 꼽는다면 ‘미니서사’, ‘미니픽션’, ‘미니단편’이다. 1980년대부터 전개된 초기 논의에서는 ‘미니서사’와 ‘미니단편’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으나 2000년을 전후로 ‘미니픽션’이 강세를 보였고, 근래에는 ‘미니서사’가, 적어도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³⁾ 그러나 세 용어는 미니픽션에 대한 상이한 이론적 접근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정의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용어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미니단편(minicuent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는 아르헨티나의 비올레타 로호(Violeta Rojo)이다. 로호의 정의에 따르면, “미니단편은 단편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규모는 훨씬 축소된 것이다”(Rojo 1997, 49). 다시 말해서, 길지만 짧은 단편이라는 것이다. 이때 로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단편이란 애드가 앨런 포가 시작하고 오라시오 키로가(Horacio Quiroga)의 「완벽한 단편작가의 10계명 Decálogo del perfecto cuentista」과 「완벽한 단편작가의 교본 Manual del perfecto cuentista」에 이르러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문학(literatura hispanoamérica)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장르이다. 즉, 기승전결로 사건을 전개하는, 2,000단어에서 10,000단어 사이의 작품이다. 이러한 단편의 특성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로호는 단편과 미니단편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허구성(ficcionalidad)과 서사성(narratividad)을 강조한다.⁴⁾ 그렇다면 로호의 미니단편이란 허구성과 서사성

3) 이를테면, 후안 아르만도 에플레(Juan Armando Epple)는 『칠레의 미니단편 100선 Cien microcuentos chilenos』라는 편지의 서문에서는 ‘미니단편’ 대신에 ‘미니서사’(micro-relato)라는 용어를 사용한다(Epple 2002, 7). 로사리오 알론소(Rosario Alonso)와 마리아 베가 데 라 페냐 델 바르코(María Vega de la Peña del Barco)는 “미니서사와 미니단편을 동의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고 밝히기도 한다(Alonso 2004, 95).

4) 로호는 서사성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한다. “미니단편에서도 행동이 서술된다. 적어도 하나의 인물이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 서술된다. 이때 인물은 종종 확정적이지 않고 언명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위치한다”(Rojo 1997, 44).

을 갖추고, 길이는 “흔히 인쇄된 책으로 1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보통은 2페이지 미만”(Rojo 1997, 8)의 아주 짧은 단편을 가리킨다.

이처럼 로호는 단편과 미니단편의 깊은 연관성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미니단편은 단편에서 유래했으며, 장르 형성과정에서 문학의 여러 장르와 비문학적인 장르를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편의 특성과 더불어 새로운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새로운 특성이란 무엇보다도 짧은 것이다. 따라서 단편과 미니단편의 특성은 동일하지 않으나 매우 유사하므로 미니단편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는 것이 로호의 견해이다(Rojo 1997, 54).

한편, 미니단편보다는 미니서사(microrrelato 또는 micro-relato)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론가도 있다. 이 용어는 1981년 돌로레스 코흐가 처음 사용한 이래, 여러 이론가들이 애용하고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코흐에 따르면, 미니서사는 “수필, 단편, 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 “도입부가 없고, 일화나 행동이 없으며, 명확한 인물도 없고, 절정도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대단원도 없다”(Koch 1981, 123). 이처럼 코흐는 전통적인 단편과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미니서사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그러나 홀리오 토리, 후안 호세 아레올라, 아우구스토 몬테로스, 레네 아빌레스 파빌라(René Avilés Fabila)에 대한 실제 분석을 보면 코흐의 미니서사는, 라울 브라스카의 평처럼, 앞에서 언급한 로호의 미니단편과 대동소이하다(Brasca 2009, 28).

최근에 미니서사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한 사람은 라틴아메리카 문학 비평계에서 일찍부터 단편소설 이론을 천착해온 다비드 라그마노비치이다. 이 이론가도 로호와 마찬가지로 허구성과 서사성을 강조하지만 접근방식은 단편이론가답게 훨씬 체계적이고 엄밀하다. 라그마노비치는 미니텍스트(microtexto), 미니픽션(minificción), 미니서사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우선 글로 쓴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텍스트 가운데 길이가 극히 짧은 것을 가리켜 미니텍스트라고 부른다(Lagmanovich 2006, 23). 그러나 텍스트에 여러 종류가 있듯이, 미니텍스트 역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를테면,

텔레비전 광고라든가 길거리의 낙서(graffiti)라든가 각종 공지문도 미니텍스트인데, 이 가운데 허구적 성격이 가미된 것만을 가리켜 미니픽션이라고 부른다.

짧은 시와 마찬가지로 짧고 상상적인 광고 텍스트는 길이로 보면 미니텍스트인데, 이러한 텍스트에서 우리가 미적 기능(función estética)을 감지하면 미니픽션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Lagmanovich 2006, 26)

그런데 허구성만으로는 미니텍스트의 문학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라그마노비치의 생각이다. 짧고 허구적인 텍스트가 문학작품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미니서사가 되려면 서사성이 작품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서사성이란 “a)기본적인 상황(이처럼 짧은 텍스트에서는 많은 경우 암묵적이다), b)초기 상황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 c)초기 상황으로 되돌려놓거나 아니며 초기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말이나 대단원(종종 충격적이고, 종종 열린 결말)”이라는 구성을 가리킨다(Lagmanovich 2006, 26). 요약하면, 미니텍스트에 허구성이 가미되면 미니픽션이고, 미니픽션에 서사성이 개입되면 미니서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라그마노비치의 미니서사란 허구성과 서사성을 갖추고 있으나 분량이 매우 짧은 텍스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비올레타 로호의 미니단편 정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라그마노비치는 결말의 사실성 여부에 따라서 미니단편과 미니서사를 구별하려는 돌로레스 코흐의 시론적인 견해를 반박하고,⁵⁾ “이 책의 저자라그마노비치가 보기에는 미니단편과

5) 코흐는 「미니서사의 간결성을 위한 10가지 방법 Diez recursos para lograr la brevedad en el micro-relato」에서 다음과 같이 미니단편과 미니서사를 구별한다. “그렇다면 미니서사와 미니단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니단편에서 서술된 사건은 얼마간 사실적이며, 종국적으로는 구체적인 행동, 즉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다. 반면에 미니서사의 진정한 결말은 행동이 아니라 사고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니단편의 결말은 서사 세계에서 발생한 그 무엇에 의존하는 반면에 미니서사의 결말은 작가에게 발생한 그 무엇에 의존한다”(Koch 2000, 3-4).

나, 허구성이다. 반면에 서사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미니픽션의 충분 조건이다. 이러한 사발라의 용법에 따르면, 신문 기사와 같은 사실의 기술은 허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길이는 짧고 형식은 전통적인 단편에서 벗어난 서사라고 할지라도 미니픽션이 아니다. 반면에 역사적 사건을 다루더라도 패러디를 통해서 허구성을 부여하면 미니픽션이 된다.

이상의 세 용어 가운데 현재 이론가들의 경향은 미니서사로 기울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짧은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대하소설, 장편, 중편, 단편과 같은 이야기 장르의 일종이 되려면 서사성을 지녀야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그마노비치는 물론이고, 스페인의 미니픽션 이론가 페르난도 발스(Fernando Valls)도 “미니서사는 이야기를 얘기하는(양보할 수 없는 원칙) 짧은 서사장르(género narrativo breve)”라고 정의함으로써 서사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Valls 2008, 20).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기예르모 실레스(Guillermo Siles)도 스토리(relato)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미니서사라는 용어를 선택한다(Siles 2007, 30-33).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니서사와 미니픽션을 아예 다른 장르 구별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다. 일례로, 돌로레스 코흐는 2004년 제2차 세계 미니픽션 대회(II Congreso Internacional de Minificción)에서 발표한 「마이크로서술인가 아니면 미니단편인가? 미니픽션인가 아니면 초단편인가? ¿Microrrelato o minicuento? ¿Minificción o hiperbreve?」에서 ‘미니서사’는 ‘미니단편’보다 훨씬 의미가 넓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니서사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운을 댄 다음, 미니서사와 미니픽션을 구별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라우로 사발라와 오랫동안 유익한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일반적인 용법으로 ‘미니픽션’을 사용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하위 장르가, 비록 하이쿠만큼 짧지만, 이미 알고 있는 여타의 짧은 형식과 구별되는 위치를 차지할 가치가 있다.(Koch 2004, 51)

이처럼 미니서사를 미니단편이나 미니픽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장르로

글 사이의 관계는 미니픽션의 연구의 초기부터 비평가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돌로레스 코흐는 1981년에 발표한 「멕시코의 미니서사: 토리, 아레올라, 몬테로소, 아빌레스 파빌라 El micro-relato en México: Torri, Arreola, Monterroso y Avilés Fabila」글에서 “이런 텍스트[미니서사]는 한편으로는 우화나 알레고리처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옛 형식을 갱신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문명과 기술에서 태동한 비문학적인 담론을 포함한다”(Koch 1981, 130)고 주장함으로써 미니픽션과 다른 유형의 글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이런 견해는 이후에 전개된 미니픽션 연구에서 일종의 지침처럼 받아들이는데,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미니픽션을 조명하는 라우로 사발라가 미니픽션과 다른 유형의 짧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 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장르(산문시, 수필, 연대기, 만화) 이외에도 수많은 장르의 짧은 글이 ‘극초단 서사(narrativa ultracorto)’에서 패러디되거나 혼종된다”(Zavala 2002, 551)고 말함으로써 미니픽션을 ‘장르적 혼종(hibridación genérica)’, 즉 혼종장르로 정의한다.

코흐나 사발라가 미니픽션을 혼종장르로 정의할 때, 이들의 초점은 미니픽션의 태동기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의 미니픽션이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전개된 라틴아메리카의 아방가르드 문학, 즉 기존 장르의 파괴가 환영받고, 다양한 문학적 실험은 성패와 상관없이 실험 자체만으로 상찬을 받던 시대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시, 소설, 수필 그 어디에도 속하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르헤스의 유명한 작품 「보르헤스와 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미니픽션을 혼종장르로 보면, 이런 유형의 작품과 아울러 앞서 언급한 루벤 다리오, 비센테 우이도브로의 작품과 그동안 산문시로 분류하던, “서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멕시코의 짧은 텍스트”(Zavala 2002, 549)를 미니픽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¹⁰⁾ 이로써 문학사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한 ‘비정상적인 작

10) 비올레타 로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루벤 다리오 호세 안토니오 라모스 수크레

품'은 미니픽션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의 계보는 잠정적으로나마 완성된다.¹¹⁾

다른 한편으로, 미니픽션을 혼종장르로 규정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존재한 수많은 유형의 짧은 텍스트와 미니픽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속담에서 보듯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짧고 간명한 진술은 항상 존재했으며,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글보다는 말의 영향이 강하므로 진술의 편린성(fragmentación)이 두드러진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짧다는 특성 하나만으로 미니픽션과 동서고금의 짧은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연상하고, 미니픽션은 예로부터 존재하던 장르였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미니픽션이 혼종장르라는 얘기는 예로부터 존재하던 다양한 유형의 짧은 텍스트가 미니픽션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으나 모든 유형의 짧은 텍스트가 곧 미니픽션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혼종장르로서 미니픽션이란, 기존의 짧은 텍스트와는 구별되며,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다.

그러나 미니픽션이 비록 우화, 전설, 신화, 속담, 편지, 금언, 격언, 과학, 광고문구 등 갖가지 유형의 이질적인 장르와 관계가 있을지라도 '장르적 혼종'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사발라가 '혼종'(hibridación)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때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콜로리얼리즘이 유행하던 시기로, 미니픽션을 시류에 맞게 포장함으로써 연구와 창작을 추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José Antonio Ramos Sucre), 비센테 우이도브로와 같은 최초의 미니단편 작가군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방금 언급한 세 시인이 그러한데, 이들의 방대한 창작물 가운데는 작은 이야기 작품도 있다”(Rojo 1997, 29)고 얘기한다.

- 11) 2000년 콜롬비아의 국립교육대학(Universidad Pedagógica Nacional)이 설립한 '이 미니 그룹'(Grupo HIMINI)은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등 라틴아메리카의 미니픽션 선집을 출판하고 있다. 이 선집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각국의 미니픽션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의 계보는 현재의 20세기 초반에서 19세기로 소급될 수 있다. 일례로 라우로 사발라가 편찬한 『멕시코 미니픽션 *Minificción mexicana*』을 보면 19세기 후반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구자'라는 이름의 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미니픽션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20세기 초반에는 기존 장르의 혼합이라는 관념보다는 장르 간의 경계를 넘어선다거나 기존 장르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탈장르라는 관념이 우세했다. 돌로레스 코흐와 라우로 사발로가 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의 효시로 꼽는 홀리오 토리의 「키르케에게 A Circe」(1917)도 이런 탈장르적인 성격을 지닌 글 가운데 하나이다.

키르케여, 덕망 높은 여신이여! 저는 지금까지 당신의 전언을 곧이곧대로 따랐나이다. 그러나 사이렌들이 사는 섬이 어렵풋하게 보일 때 제 몸을 뚫대에 묶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작심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한 바다 한가운데 치명적인 초원이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떠다니는 제비꽃 다 밟처럼 보였습니다.

키르케여! 머리칼이 아름다운 고귀한 여신이여! 내 운명이 너무 잔혹합니다. 죽으려고 작심했는데 사이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더군요.(Koch 2003, 90)

이와 더불어 근래의 미니픽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패러디나 상호텍스트성을 보더라도 장르적 혼종이라는 용어보다는 토마시니 그라시엘라(Tomassini Graciela)와 콜롬보 스텔라 마리스(Colombo Stella Maris)의 말처럼 ‘통장르적인 범주(categoría transgénica)’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Tomassini 1996).¹²⁾

셋째, 문학사를 보면 모든 장르는 태동 시점이나 발전 과정에서 항상 다른 장르를 수용했다. 이를테면, 희곡은 시나 속담이나 금언을, 소설은 희곡이나 시나 편지를 받아들였다. 이때 수용된 장르는 본래의 성격을 상실하고 문학적으로 재문맥화됨으로써 수용한 장르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José Luis González)의 「편지 La carta」라는¹³⁾ 미니픽션은 작품의 제

12) 현재 라우로 사발라는 미니픽션이 차용한 여러 유형의 글을 언급할 때 ‘장르적 혼종성’, ‘혼종적’이라는 용어와 함께 “경계를 넘는다(cruzar frontera)”라든가 “미니픽션의 경계(las fronteras de la minificción)”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니픽션의 통장르적 성격을 인정한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참고, Laruo Zavala, *La minificción bajo el microscopio*, p. 14, 53, 73).

13) <http://www.ciudadseva.com/textos/cuentos/esp/pr/gonzalez/carta.htm>

목처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간 아들이 시골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독자이며, 소식의 전달보다는 아이러니를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편지 고유의 속성을 상실하고 있다. 비올레타 로호는 「미니단편의 (탈)장르적인 성격 *El minicuento, ese (des)generado*」이라는 글에서¹⁴⁾ 미니단편의 모체가 되는 단편이 변이적인 성격(*carácter proteico*)을 지니고 있으며, 형성 과정에서 다른 여러 장르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미니단편은 본질적으로 통장르적(*transgenérico*)이다”(Rojo 1997, 111)라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러한 견해가 미니픽션의 장르적 유연성을 훨씬 더 적절하게 파악한 것이다.

한편, 미니픽션을 혼종장르가 아니라 독립 장르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도 있는데, 바로 라그마노비치이다. 이 비평가의 견해가 대부분의 미니픽션 이론가들과 다른 까닭은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라그마노비치는 이른바 ‘서사적 관점(*posición narrativa*)’을 취함으로써 미니픽션의 장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당연하지만 라그마노비치도 시나 수필 같은 다양한 유형의 담론이 미니서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미니픽션에는 “종종 공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다양한 장르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미니서사는 혼종장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장르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Lagmanovich 2006, 29).

이에 따라 라그마노비치는 앞에서 언급한 허구성과 서사성이 미니서사의 최소 요건이라는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흔히 미니서사나 미니픽션으로 분류하는 장르를 배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언, 격언, 경구는 비록 미니서사처럼 짧기는 하지만 문학보다는 철학에 가깝다는 점에서 미니서사가 아니다. 둘째, 낙서는 기발하고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서

14) 비올레타 로호의 이 글은 원래 1996년 *Revista Interamericana de Bibliografía*(Vol. XLVI, 39-47)에 게재되었으나 1997년에 출판한 『미니단편의 인식을 위한 소책자 *Breve manual para reconocer los minicuentos*』에 수정본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문 대신 저서를 인용한다.

사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미니서사라고 볼 수 없다. 셋째, 하이쿠(haiku)와 하이쿠의 영향을 받아 쓴 호세 후안 타블라다(José Juan Tablada)의 시는 서정시로서 허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시인의 감성을 표현하거나 자연을 제시할 뿐, 서사성은 전무하므로 미니서사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마르코 데네비가 창작한 미니연극은 허구성과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연은 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니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Lagmanovich 2006, 29-30, 85-101). 라그마노비치가 미니픽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는 문학은 19세기에 등장한 산문시이다. 이에 의거하여, 보들레르와 루벤 다리올을 미니픽션의 선구자로, 라틴아메리카 아방가르드 작가들을 미니픽션의 개시자(iniciadores)로 평가한다(Lagmanovich 2006, 164).

이러한 라그마노비치의 견해는 명확하기는 하지만 서사(narrative)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사란, 글은 물론이고 구술, 만화,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해서 소통되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진행을 의미한다. 연극이든 시든 영화든 이야기만 전개된다면 서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라그마노비치가 마르코 데네비의 미니연극을 공연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오로지 글로 된 서사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미니픽션이 혼합장르인가, 아니면 독립 장르인가라는 문제는 현재 창작되고 있는 작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니픽션의 특성상 짧은 텍스트에 함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 전통과 산물을 암시하거나 패러디하거나 차용하는 등 기존 문학 장르와 비문학 장르를 부단히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통장르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 미니픽션 이론의 한계

지금까지 미니픽션 이론의 기본이 되는 용어와 장르의 문제를 살펴보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작품을 미니픽션에서 제외한다면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창작된 작품이나 기존의 문학 개념을 고수한다는 의미에서 이론적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허구성을 중심으로 미니픽션을 정의해야 할 터인데, 서사성에 무게가 실린 짧은 텍스트가 100년 가까이 누적되어온 라틴아메리카에서 미니픽션 이론가들이 전통의 무게를 쉽게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니픽션의 장르 논의도 한계가 있다. 장르적 혼합이나 통장르적 성격을 논할 때 라틴아메리카 이론가들은 시, 산문, 소설 등 문자로 된 장르만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기에 장르 넘나듦을 논의하면서도 문학과 미술과 같은 예술 장르 사이의 장벽을 넘나들려고 시도한 아폴리네르의 캘리그램(Calligrammes)이나 브라질의 구체시(poesia concreta)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의 일부 미니픽션 작가들은 짧은 텍스트에 회화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통합하는 등, 예술 장르 사이의 벽을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21세기의 미니픽션의 이론은 문학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통찰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아우구스토 몬테로소(2008), 『검은 양과 또 다른 우화들』, 김창민 역, 지만지.
- Alonso, Rosario y María Vega de la Peña del Barco(2004), “Sugerente textura, el texto breve y el haiku,” en Francisca Noguerol(ed.), *Escritos disconformes. Nuevos modelos de lectura*, Salamanca: Ediciones Universidad de Salamanca.
- Brasca, Raúl(2004), “Criterio de selección y concepto de minificción: un derroteo de seis años y cuatro antologías,” en Francisca Noguerol(ed.), *Escritos disconformes. Nuevos modelos de lectura*, Salamanca: Ediciones Universidad de Salamanca.
- Brasca, Raúl(2009), “La denominacion de una nueva forma textual: un galimatias que perdura,” *Fix100(Revista hispanoamericana de ficcion*

- breve*), No. 1, pp. 27-30.
- Bürger, Peter(1987), *Teoría de la vanguardia*, Buenos Aires: Ediciones Península.
- Epple, Juan Armando(2002), *Cien microcuentos chilenos*, Santiago de Chile: Editorial Cuarto Propio.
- Epple, Juan Armando(2004), “La minificción y la crítica,” en Francisca Nogueroled.), *Escritos disconformes. Nuevos modelos de lectura*, Salamanca: Ediciones Universidad de Salamanca.
- González, José Luis(1948), “La carta,” <http://www.ciudadseva.com/textos/cuentos/esp/pr/gonzalez/carta.htm>
- Koch, Dolores M.(1981), “El micro-relato en México: Torri, Arreola, Monterroso y Avilés Fabila,” *Hispanérica*, Vol. 10, No. 30, pp. 123-130.
- Koch, Dolores M.(2000), “Diez recursos para lograr la brevedad en el micro-relato,” *El Cuento en red*, No. 2. http://148.206.107.10/biblioteca_digital/estadistica.php?id_host=10&tipo=ARTICULO&id=3699&archivo=10-250-3699ipl.pdf&titulo=Diez recursos para lograr la brevedad en el micro-relato.
- Koch, Dolores M.(2004), “¿Microrrelato o minicuento ¿Minificción o hiperbreve,” en Francisca Nogueroled.), *Escritos disconformes. Nuevos modelos de lectura*, Salamanca: Ediciones Universidad de Salamanca.
- Howe, Irving and Ileana Wiener Howe(eds.)(1983), *Short Shorts: An Anthology of the Shortest Short Stories*, New York: Bantam Books.
- Lagmanovich, David(2006), *El microrrelato. Teoría e historia*, Palencia: Menoscuarto.
- Monterroso, Augusto(2007), *Obras completas (y otros cuentos)*, México: Ediciones Era.
- Rojo, Violeta(1997), *Breve manual para reconocer minicuentos*,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Unidad Azcapotzalco.
- Shepard, Robert & Thomas James(eds.)(1986), *Sudden Fiction*, Layton, Utah: Gibbs Smith Publisher.
- Siles, Guillermo(2007), *El microrrelato hispanoamericano*, Buenos Aires: Corregidor.

- Tomassini, Graciela y Stella Maris Colombo(1996), “La minificción como clase textual transgenérica,” <http://www.cuentosymas.com.ar/cuento.php?idstory=222>
- Torri, Julio(2003), “A Circe,” en Lauro Zavala(ed.), *Minificción mexicana*,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Valls, Fernando(2008), *Soplando vidrio y otros estudios sobre el microrrelato español*, Madrid: Páginas de Espuma.
- Zavala, Lauro(2002), “El cuento ultracorto bajo el microscopio,” *Revista de literatura*, Vol. LXIV, No. 128, pp. 539-553.
- Zavala, Lauro(ed.)(2003), *Minifcción mexicana*,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Zavala, Lauro(2004), *Catrografías del cuento y la minifcción*, Sevilla: Renacimiento.
- Zavala, Lauro(2006), *La minifcción bajo el microscopio*,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Más de 44 mil cuentos recibidos en concurso ‘Santiago en cien palabras’ 2009,” *Periódico 7 Días*(24 de Noviembre del 2009). <http://www.7dias.com.do/app/article.aspx?id=64131>
- 웹사이트: Fifty Word Fiction. <http://www.tangents.co.uk/50words/>

박 병 규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라틴아메리카연구소
lapia@snu.ac.kr

논문접수일: 2010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6일